



# 고수 “이병훈 감독님 믿고 첫 사극 출연”

### MBC ‘옥중화’... ‘대장금’ 넘어서는 한류 열풍 기대 진세연·전광렬·주진모 등 출연...오는 30일 첫 방영

감옥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붙은 이름, ‘옥녀’. 오는 30일 첫 방송하는 MBC TV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는 어둡디 어두운 감옥에서 나고 자란, 총명하고 정의로운 천재 소녀가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다.

일단 ‘대장금’, ‘허준’, ‘동이’, ‘마의’ 등을 만든 사극의 거장 이병훈 PD, 그와 함께 ‘허준’, ‘상도’를 만든 최완규 작가가 16년 만에 의기투합한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화제에 올랐다.

여기에 ‘대장금’으로 한류의 큰 획을 그은 이병훈 PD가 또다시 한류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끈다.

연출을 맡은 이병훈 PD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최완규 작가와 2년간 열심히 노력했다”며 “고생했다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장금’의 수라간, ‘마의’의 사복시에 이어 ‘옥중화’는 죄수를 관장하던 관청이자 지금의 교도소를 뜻하는 전옥서와 서민을 위한 인권제도이자 현재의

변호사에 해당하는 외지부를 증명한다.

이 PD는 감옥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희로애락, 즐거움과 행복을 다뤄보겠다고 “최완규 작가와 저는 ‘똥 소여의 모험’처럼 극을 끌고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진세연이 연기하는 옥녀는 감옥에 갇힌 전설적인 체담인(첩보원) 박태수(전광렬), 전우치(이세창 분), 토정 이지함(주진모)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지식을 배워나간다.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죄’ 밖에 없는 약자들을 도우려는 그는 체담인(體探人)이 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나중에는 외지부가 되어 약자를 돕는다.

진세연은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은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서 드라마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제 보답하는 걸이라고 생각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작발표회 내내 밝은 모습으로 임한 그는 “옥녀만의 매력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 초반에 무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잘한다. 액션으로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활짝 웃었다.

옥녀의 어린시절은 아역 배우 정다빈이 맡았다.

조선상단의 우두머리로, 힘없는 양민과 상인을 위해 외지부를 운영하는 운대원 역은 고수가 맡았다. 운명처럼 만난 옥녀를 도우며 사랑하게 되는 역할이다.

대부분의 18년 만에 첫 사극이다. 고수는 “사극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병훈 감독님의 굉장한 팬으로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감사하게도 직접 전화를 주셔서 같이 하자고 하셔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감독님 믿고 참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고수는 예상 시청률을 묻는 말에 “전 작품인 결혼계약의 종영 시청률을 첫회에 그대로 받아온 뒤 한 회가 방송될 때마다 1%포인트씩 오르며 좋겠다”고 말했다가 “그러면 70%가 넘는다”는 사회자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병훈 PD는 “남녀 주인공을 가상의 인물로 하는 대신 배경을 임궽정, 전우치, 정난정, 이지함 등 유명한 인물이 많은 명종 때로 해서 리얼리티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와 제작진, CP, 드라마 국장이 참석하는 보통의 제작발표회와 달리 이날 제작발표회는 이날 무대에 오른 배우만 27명에 이르러 눈길을 끌었다. 50부작인 ‘옥중화’는 오는 30일 오후 10시에 첫 방송된다.

#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 “계약 끝났는데도 이미지 사용...배상금 전액 기부 할 것”

배우 송혜교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2년독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입장이다.

R사는 2014년부터 송씨를 모델로 썼으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지난 1월에, 가방 부분은 3월에 종료됐다. 대신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간접광고(PPL) 계약을 맺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배우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 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다”며 “단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R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UAA는 “R사는 초상권과 관련, 비정상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했으나 송혜교 씨는 재계약할 계획이 없다”며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 김소현, tvN 드라마 ‘싸우자 귀신아’ 캐스팅

배우 김소현(17)이 이번에는 귀신으로 변신한다. 김소현이 오는 7월 방송하는 tvN 드라마 ‘싸우자 귀신아’에서 퇴마를 돕는 귀신을 연기한다고 소속사 싸이더스HQ가 27일 밝혔다.

‘싸우자 귀신아’는 지난 2007년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된 임인스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으로, 귀신이 보이는 퇴마사의 좌충우돌을 그린다.

김소현은 19년 짧은 인생 동안 공부만 하다가 사고로 죽어 귀신이 된 김현지 역을 맡았다. 오지람이 넣어 귀신들의 온갖 사연을 들려주며 퇴마사를 도와 귀신들을 저세상으로 돌려보내 주는 일을 한다.

소속사는 “김소현이 제 나이에 맞는 연기로 캐릭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킷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정 PD의 자전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정윤성의 선택 스페셜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 소+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을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인생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12	00 KBS 뉴스12	05 일일 드라마 <전상의 약속>(재)	00 MBC 정오뉴스 20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1	10 뉴스특급	0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별별가족	3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20 자연의 신비 스페셜 55 TV 블로그 토크(재)
2	30 직언직설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몸이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3	00 숨터 05 이웃길 찰스(재) 55 튠트생활제초	00 자동차부착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티 파이널스 55 파워 배틀 와치카	00 3시 뉴스 브리핑
4	00 쾌도남마	00 4시 뉴스중중	00 여유만만(재)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1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러라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전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8	20 나는 몸신이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동지>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9	50 서민갑부	00 KBS 뉴스9	00 과학의 달 특집 KBS 스페셜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마스터 - 국수의 신>
10	00 오늘부터 대학생(재)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미래도시, 기업으로 날다>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1	30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림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12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달걀 그라탱과 연어 샐러드>
05:30 건강한 아침	11:00 세계테마기행 (재)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그랜드캐니언>	11:40 한국기행
06:10 세계의 눈 <위기의 지구 - 화산 폭발>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지피터스(재)	12:10 통일의 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II>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0 역사채널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3:5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00 곰디와 친구들	14:00 코코몽2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09:40 달라졌어요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신들의 언덕, 청장고원 동부를 가다>
15:20 꼬마 철학자 유고	21:30 한국기행 <동해남부선 4부 붉은 경주로이다>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6:00 곰디와 친구들(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30 EBS 뉴스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19:30 EBS 뉴스	20:40 다큐오늘
20:40 다큐오늘	24:05 역사채널 e(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 (음 3월 22일 庚辰)

<b>子</b>	48년생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만 기쁜 대응을 할 수 있다. 60년생 흥왕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으나, 72년생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다. 84년생 연결 고리가 참으로 부실한 모양이다. 행운의 숫자 : 85, 80	<b>午</b>	42년생 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54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66년생 가장 현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78년생 작은 불편은 보이나 결코 커다란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52
<b>丑</b>	49년생 별탈은 없지만 무미건조하다. 61년생 적극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처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도다. 73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85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백배 하자. 행운의 숫자 : 89, 86	<b>未</b>	43년생 애매우먼서까지 함께할 이유가 없다. 55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몹시 당황할 수 있는 날이다. 67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도. 79년생 판도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1, 43
<b>寅</b>	50년생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전연 달라질 수도 있다. 62년생 희망적이고 알차게 진행되리라. 74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86년생 설상가상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80, 81	<b>申</b>	44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56년생 장군이라면 잠된 결론에 이른다. 68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치에 놀랄 것이다. 80년생 먼길 떠난 과객 앞에 날이 저문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83, 12
<b>卯</b>	51년생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조용히 피해 나가자. 63년생 절실히 필요한 분야만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75년생 자율적인 것이 편하리라. 87년생 승세는 명약관화하니 그대로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18, 06	<b>酉</b>	45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다. 57년생 썩 대신 닦아지만 만족도는 괜찮다. 69년생 아주 중대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니 언행을 삼가라. 81년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내고 단연코 이루어내는 쾌거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3, 90
<b>辰</b>	40년생 노과심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감히 버려라. 52년생 지속적이어야 한다. 64년생 무난한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76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88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행운의 숫자 : 30, 59	<b>戌</b>	46년생 길일이나 복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58년생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시험대에 오를 필요가 없다. 70년생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니 개의치 말라. 82년생 연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취월장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65
<b>巳</b>	41년생 재물이 특별히 좋으니 재수발원하여 보라. 53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다. 65년생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77년생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리라. 89년생 아니 다 싶으면 즉시 접어라. 행운의 숫자 : 60, 70	<b>亥</b>	47년생 주변의 충고를 수용한다면 해결점을 찾는다. 59년생 궁극적으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셈이 된다. 71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83년생 지속적인 노력 이 일관되어야 성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0,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